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김해인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김경환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 I. 서론
- II. 국어 교과서와 시각 자료
- III. 설문 조사와 자료 분석 방법
- IV. 연구 결과와 논의
- V. 요약과 결론

I. 서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대부분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알려 줌과 동시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 보여 준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양식의 자료들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며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교수·학습 상황에 사용하게 되었다.

교과서에 시각 자료가 삽입된 것에 대한 기록은 1658년 출간된 코메니우스의 저서 『세계도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시각 자료는 교과서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시각 자료가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동적이지만, 멀티미디어 자료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초창기의 단순한 그림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교과서에는 사진, 도표, 차트 등 다양한 종류의 시각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시각 자료는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교과서에서 그 비중 또한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중학교 국어 교과에서도 교과서 선정, 채택 기준과 교사들의 인식에 시각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주환, 2011). 그러나 교과서 관련 연구는 대부분 교과서의 개발이나 교사의 교과서 채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박정진, 2005; 주형주, 2011; 김주환, 2011) 시각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활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교과서 속의 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 환경에서는 다양한 양식(mode)의 자료가 교과서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복합 양식(multimode) 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지는 더욱 중요하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적절한 시각 자료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잘 구조화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각 자료는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린다(Winn & Holliday, 1982; Wileman, 1993; 변영계·김영환, 1996)는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교과서에서 시각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의 언어 자료에 대한 연구나 개발·평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시각 자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성치경,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실제 사용하는 주체 중 하나인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시각 자료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인식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학생들이 각각의 시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자료의 제시 형태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는가?
2. 중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자료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는가?

3. 중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자료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는가?

II. 국어 교과서와 시각 자료

이 장에서는 우선 교과서의 개념을 살펴본다. 교과서에 대한 개념,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시각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뒤,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시각 자료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1. 교과서의 개념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는 Dighton(1972)과 노명완·정혜승·윤준채(2004)에서 찾아볼 수 있다. Dighton(1972)는 교과서를 넓은 의미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문화 전반에 걸쳐 공적 구실을 하는 공기(公器)적 교육수단(Von Doren, 1967)으로, 좁은 의미로 내용 전달에 있어서 교수 및 학습 매체로서 교육과정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 기획, 저작된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김지훈·이자원, 2011: 재인용). 노명완 외(2004)는 교과서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로서 교육 이념과 목적이 들어 있고, 교과목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시한 내용 제공서이자 해설서·안내서로 설명하였다. 또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인으로 삽화와 여백처리와 같은 외적 요인과, 내용선정과 조직 및 단원구성과 같은 내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교과서의 개념에 대한 확장된 논의는 정혜승(2005, 20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혜승(2005)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중심수단으로 교과서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정혜승(2012)에서는 ‘교과서의 독자’로서 학생을 고려하였다.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이 능동적으로 교과서의 구성요인을 활용하여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구체화된 것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둘째,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주요한 도구로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 셋째, 학생들은 교과서 구성요인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능동적인 독자’로서 교과서의 구성요인 중 하나인 시각 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교과서의 시각 자료

데일의 경험의 원추는 추상적인 내용 학습을 구성하는 것으로 언어와 더불어 시각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시각 자료 또한 학습자에게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임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전제로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자료의 특성과 활용에 따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시각 자료의 특성을 제시 형태에 따라 분류한 연구가 있다. Hawk(1985)는 시각 자료를 배경지식 활성화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학생이 시각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채워 갈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각 자료인 참여형 시각 자료(participatory organizer)와 모든 자료가 완성된 형태로 제시되는 제시형 시각 자료(final form organizer)로 구분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시각자료를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 이외에도 시각 자료를 활용한 학습에서 학생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각 자료의 특성을 목적에 따라 분류한 연구가 있다. 박준용(2014)은 국어 교과서 속의 복합양식 매체인 삽화 또한 의미구성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시각 자료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등 장식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 준 연구이다.¹ 성치경(2001)은 언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시각 자료로 분류하면서 교과서의 시각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면서, 학습내용과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중요한 학습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시각 자료의 특성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연구가 있다. 우문영(2013)은 국어과 평가 문항에서 시각 자료의 활용을 분석하면서 시각 자료의 유형을 사진, 그림, 표, 그래프, 만화, 캡처, 지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2007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분석한 김지훈·이자원(2011)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시각 자료이며, 사진, 지도, 도형, 그래프, 그림, 모형, 영상 등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과학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분석한 Slough(2010)에서는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사진, 사실적·양식적 그림, 그림 용어 사전, 다이어그램, 순환형·연속형 플로우 차트, 단면 도해, 지도, 표, 그래프·히스토그램, 확대된 그림 등으로 시각 자료를 분류하였다.

끝으로 시각 자료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Brody(1982)는 학습자들이 역동적인 그림을 더 오래 보고, 더 잘 반응한다는 점과 학습자들이 복잡한 그림을 보면서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바탕으로 시각 자료가 흥미·관심 등의 정서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교과서에서 그

1 노명완 외(2004)는 삽화의 기능을 학습내용 그 자체인 필수기능, 내용이해를 위한 보조 기능, 단순한 장식적 기능을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림의 역할이 단순한 장식에서 나아가 교육적 효과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텍스트 속의 정보 반복, 부가 정보 제공, 기억 등 학습자의 내적 인지 과정 발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시각 자료는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둘째, 시각 자료의 특성을 제시 형태에 따라 참여형 시각 자료와 제시형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목적에 따라 학습목표 도달, 내용 이해, 장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사진·그림, 표, 차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시각 자료의 활용은 흥미·관심, 동기 유발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이해, 심화·추론, 기억과 같은 인지적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III. 설문 조사와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서울 Y중학교의 2학년 학생 186명으로, 학년 전체(6개 학급)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중 남학생은 103명(55.4%), 여학생은 83명(44.6%)이었다.²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은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하여 학년 간 편차가 적고, 고등학교에 비하여 수업에서 교과서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2학년 국어 교과를 2명의 교사가 나누어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변인이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이 완료된 뒤 각각 다른 교사에게 수업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χ^2 검정과 T검정을 진행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설문지는 크게 두 영역(①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인식, ②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

분류	설문 문항
①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인식	- 국어 교과서에서 시각 자료의 필요성 -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만족도와 이유
②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인식	- 정서적 요인: 흥미 · 관심, 학습 동기 유발 - 인지적 요인: 이해, 심화 · 추론, 기억

표 2. 설문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특성

번호	교수학습 단계	제시 형태	목적	유형
1	단원 펼쳐보기	제시형	학습 목표 달성	차트
2	본문	제시형	장식	그림
3	학습 활동1	참여형	내용 이해	차트
4	본문	제시형	내용 이해	그림
5	학습 활동2	참여형	학습 목표 달성	표
6	학습 활동2	참여형	장식	그림
7	학습 활동3	참여형	학습 목표 달성	표
8	활동 전에	참여형	학습 목표 달성	차트
9	본문	제시형	장식	그림
10	단원의 마무리	제시형	학습 목표 달성	차트

표 3. 각 시각 자료가 사용된 단원의 학습 목표

단원	자료번호	학습 목표
1	1~5	-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6~10	-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정리하며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다. - 논증 방식을 파악하여 주장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 자료는 설문 대상 학교에서 채택하여 수업에 이용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서 선정하였으며, 설문 대상 학생들 모두 해당 학기에 이 교과서로 수업을 듣고 학습하였다. 연구자들이 선정한 시각 자료 10개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다양한 교수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제시 형태 · 목적 · 유형을 골고루 배분하였다. 각각의 시각 자료가 사용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표 3>과 같다. 연구자 2명이 함께 협의하여 시각 자료를 선정한 뒤, 독서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1명의 검토를 거쳤다.

설문은 약 35분 동안 교실에서 종이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합한 설문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분포의 차이 검정은 χ^2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차이 검정은 t검정과 ANOVA를 사용하였다. 사후 검정은 scheffe 사후 검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와 논의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물어 보기에 앞서,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 자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표 4.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여러분은 국어 교과서에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명(%)	1 (0.5%)	6 (3.2%)	32 (17.2%)	90 (48.4%)	57 (30.6%)

위의 <표 4>는 국어 교과서에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90명(48.4%),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7명(30.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에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여러분은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6점 척도)						
척도	0점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약간 만족)	4 (만족)	5 (매우 만족)
명(%)	1 (0.5%)	3 (1.6%)	18 (9.7%)	69 (37.1%)	75 (40.3%)	20 (10.8%)

다음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만족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표 5>를 보면, 총 6점 척도 중 ‘약간 만족한다(3점)’에 응답한 학생이 69명(37.1%), ‘만족한다(4점)’에 응답한 학생이 75명(40.3%)이었고 평균은 3.47로 대체적으로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시각 자료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시각 자료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

항목	명(%)
흥미를 끌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다.	55(15.0%)
공부할 내용을 잘 설명하거나 보충해 주었다.	100(27.3%)
공부할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70(19.1%)
공부할 내용을 한 눈에 정리해 주었다.	72(19.7%)
그림이 예쁘고 시각적으로 세련되게 구성되었다.	24(7.7%)
시각 자료의 양이 적절하였다.	37(10.1%)

기타	4(1.1%)
전체	366(100.0%)

〈표 6〉은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만족한다(3~5점)’는 응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 본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항목은 ‘시각 자료들이 공부할 내용을 잘 설명하거나 보충해 주었다’로, 학생들이 시각 자료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7〉에서 알 수 있듯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만족하지 않는다(0~2점)’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시각 자료들이 학습 동기를 유발하지 못했다는 응답과 공부할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7.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

항목	명(%)
흥미를 끌지 못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10(21.7%)
공부할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못했다.	5(10.9%)
공부할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았다.	10(21.7%)
공부할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고 산만했다.	5(10.9%)
그림이 촌스럽고 시각적으로 세련되지 못하였다.	6(13.0%)
시각 자료의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었다.	8(17.4%)
기타	2(4.3%)
전체	46(100%)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에 시각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인식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족·불만족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실제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단순한 삽화, 장식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명징한 학습용 자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각각의 시각 자료를 그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인식을 알아보았다.

1.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분류 준거에 따라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를 제시형과 참여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시 형태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8〉은 학생들이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흥미나 관심이 생겼는지,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학습 동기가 생겼는지 응답한 결과이다.

표 8.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에 따른 학생의 활용(정서적 요인)

단위: 명(%)

활용영역 제시형태	흥미 · 관심						
	0(낮음)	1	2	3	4	5(높음)	평균
제시형	87 (9.4%)	94 (10.1%)	185 (19.9%)	249 (26.8%)	184 (19.8%)	131 (14.1%)	2.80
참여형	73 (7.8%)	102 (11.0%)	199 (21.4%)	275 (29.6%)	185 (19.9%)	96 (10.3%)	2.74
활용영역 제시형태	학습 동기 유발						
	0(낮음)	1	2	3	4	5(높음)	평균
제시형	93 (10.0%)	104 (11.2%)	207 (22.3%)	247 (26.6%)	194 (20.9%)	85 (9.1%)	2.65
참여형	86 (9.2%)	101 (10.9%)	218 (23.4%)	262 (28.2%)	191 (20.5%)	72 (7.7%)	2.63

각각의 시각 자료가 얼마나 흥미 · 관심을 갖게 했는지, 얼마나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은 두 요인 모두에서 제시형과 참여형 모두 3

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6점 척도).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요인 모두 분포와 평균³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가 학생의 정서적 활용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는 각각의 시각 자료를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해 기초적 이해를 하는 데 얼마나 활용했는지, 심화된 이해와 추론을 하는 데 얼마나 활용했는지, 얼마나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표 9.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에 따른 학생의 활용(인지적 요인)

단위: 명(%)

활용영역 제시 형태	이해						평균
	0 (낮음)	1	2	3	4	5 (높음)	
제시형	70 (7.5%)	79 (8.5%)	165 (17.7%)	252 (27.1%)	228 (24.5%)	136 (14.6%)	2.96
참여형	50 (5.4%)	74 (8.0%)	148 (15.9%)	224 (24.1%)	278 (29.9%)	156 (16.8%)	3.15
활용영역 제시 형태	심화 · 추론						평균
	0 (낮음)	1	2	3	4	5 (높음)	
제시형	78 (8.4%)	90 (9.7%)	171 (18.4%)	219 (23.5%)	238 (25.6%)	134 (14.4%)	2.92
참여형	63 (6.8%)	81 (8.7%)	155 (16.7%)	247 (26.6%)	231 (24.8%)	153 (16.5%)	3.03
활용영역 제시 형태	기억						평균
	0 (낮음)	1	2	3	4	5 (높음)	
제시형	78 (8.4%)	112 (12.0%)	167 (18.0%)	235 (25.3%)	200 (21.5%)	138 (14.8%)	2.84
참여형	58 (6.2%)	71 (7.6%)	155 (16.7%)	240 (25.8%)	252 (27.1%)	154 (16.6%)	3.10

3 평균은 리커트식 척도(6단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하였다.

각각의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기초적 이해가 가능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분포⁴와 평균⁵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하는 데에 제시형 시각 자료보다 참여형 시각 자료가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심화된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가 심화·추론적 이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기억을 잘 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두 제시 형태 사이에 분포⁶와 평균⁷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해당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참여형 시각 자료가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참여형 시각 자료를 완성하면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적 요인은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와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심화·추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주로 빈칸 채우기 위주인 참여형 시각 자료의 특성이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심화된 이해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형 시각 자료가 학생들의 기초적 이해를 돕고 기억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chi^2=12.378$, $df=5$, $p=.030$

5 $t=-2.926$, $p=.003$

6 $\chi^2=19.486$, $df=5$, $p=.002$

7 $t=-3.826$, $p=.000$

2. 시각 자료의 목적에 따른 인식의 차이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분류 준거에 따라 시각 자료의 목적을 학습 목표 달성, 내용 이해, 장식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학생들이 시각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10〉은 학생들이 시각 자료의 목적에 따라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흥미나 관심이 생겼는지,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학습 동기가 생겼는지 응답한 결과이다.

표 10. 시각 자료의 목적에 따른 학생의 활용(정서적 요인)

단위: 명(%)

목적	활용 영역	흥미 · 관심					
		0(낮음)	1	2	3	4	5(높음)
학습목표		103 (11.1%)	114 (12.3%)	197 (21.2%)	271 (29.1%)	163 (17.5%)	82 (8.8%)
내용이해		22 (5.9%)	28 (7.5%)	70 (18.8%)	109 (29.3%)	83 (22.3%)	60 (16.1%)
장식		35 (6.3%)	54 (9.7%)	117 (21.0%)	144 (25.8%)	123 (22.0%)	85 (15.2%)
목적	활용 영역	학습 동기					
		0(낮음)	1	2	3	4	5(높음)
학습목표		108 (11.6%)	109 (11.7%)	228 (24.5%)	259 (27.8%)	165 (17.7%)	61 (6.6%)
내용이해		27 (7.3%)	35 (9.4%)	73 (19.6%)	111 (29.8%)	78 (21.0%)	48 (12.9%)
장식		44 (7.9%)	61 (10.9%)	124 (22.2%)	139 (24.9%)	142 (25.4%)	48 (8.6%)

각각의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해 얼마나 흥미나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분포⁸와 평균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8 $\chi^2=44.459$, $df=10$, $p=.000$

9 $F=20.077$, $p=.000$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학습 목표 달성이 다른 두 기능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고, 내용 이해와 장식 기능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학습 동기가 생겼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분포¹⁰와 평균¹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습 목표 달성이 다른 두 기능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고, 내용 이해와 장식 기능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가 내용 이해 · 장식 목적의 시각 자료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학습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 목표에 대한 낮은 이해와 본문 글 이해 위주의 교수 · 학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는 차트, 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표 11〉은 학생들이 시각 자료의 목적에 따라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해 기초적 이해를 하는 데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심화된 이해와 추론을 하는 데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얼마나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우선 학생들이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모든 시각 자료가 이해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각 자료의 목적에 따라 분포¹²와 평균¹³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내용이해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다른 두 기능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0 $\chi^2=36.810$, $df=10$, $p=.000$

11 $F=12.769$, $p=.000$

12 $\chi^2=27.113$, $df=10$, $p=.002$

13 $F=12.361$, $p=.000$

표 11. 시각 자료의 목적에 따른 학생의 활용(인지적 요인)

단위: 명(%)

목적 \ 활용 영역	이해						
	0(낮음)	1	2	3	4	5(높음)	평균
학습목표	71 (7.6%)	82 (8.8%)	159 (17.1%)	237 (25.5%)	248 (26.7%)	133 (14.3%)	2.98
내용이해	11 (3.0%)	23 (6.2%)	47 (12.6%)	99 (26.6%)	116 (31.2%)	76 (20.4%)	3.38
장식	38 (6.8%)	48 (8.6%)	107 (19.2%)	140 (25.1%)	142 (25.4%)	83 (14.9%)	2.98
목적 \ 활용 영역	심화·추론						
	0(낮음)	1	2	3	4	5(높음)	평균
학습목표	75 (8.1%)	82 (8.8%)	148 (15.9%)	241 (25.9%)	240 (25.8%)	144 (15.5%)	2.99
내용이해	17 (4.6%)	27 (7.3%)	57 (15.3%)	97 (26.1%)	116 (31.2%)	58 (15.6%)	3.19
장식	49 (8.8%)	62 (11.1%)	121 (21.7%)	128 (22.9%)	113 (20.3%)	85 (15.2%)	2.80
목적 \ 활용 영역	기억						
	0(낮음)	1	2	3	4	5(높음)	평균
학습목표	77 (8.3%)	94 (10.1%)	163 (17.5%)	236 (25.4%)	221 (23.8%)	139 (14.9%)	2.91
내용이해	19 (5.1%)	25 (6.7%)	57 (15.3%)	86 (23.1%)	113 (30.4%)	72 (19.4%)	3.25
장식	40 (7.2%)	64 (11.5%)	102 (18.3%)	153 (27.4%)	118 (21.1%)	81 (14.5%)	2.87

다음으로 학생들이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을 얼마나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분포¹⁴와 평균¹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내용 이해가 장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

14 $\chi^2=29.887$, $df=10$, $p=.001$

15 $F=8.010$, $p=.000$

으며, 다른 기능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분포¹⁶와 평균¹⁷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내용 이해가 다른 두 기능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습 목표 달성과 장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해석하면 내용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가 학습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에 비하여 학생들의 기초적 이해, 심화·추론적 이해, 학습 내용 기억에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관되게 세 활용 영역 모두 내용 이해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앞서 봤던 정의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본문 이해 위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글 이해 위주로 시각 자료를 배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시각 자료를 내용 이해를 돕는 삽화 정도로 인식하고, 학습 목표 달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된다.

3.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힌 분류 준거에 따라 시각 자료의 유형을 사진·그림, 표, 차트로 나누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응답을 분석하였다.

〈표 12〉는 학생들이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흥미나 관심이 생겼는지,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학습 동기가 생겼는지 응답한 결과이다.

16 $\chi^2=23.790$, $df=10$, $p=.008$

17 $F=9.025$, $p=.000$

표 12.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른 학생의 활용(정서적 요인)

단위: 명(%)

활용 영역 유형	흥미 · 관심						
	0(낮음)	1	2	3	4	5(높음)	평균
사진 · 그림	43 (5.8%)	63 (8.5%)	140 (18.8%)	196 (26.3%)	173 (23.3%)	129 (17.3%)	2.81
표	37 (9.9%)	42 (11.3%)	88 (23.7%)	110 (29.6%)	65 (17.5%)	30 (8.1%)	2.47
차트	80 (10.8%)	91 (12.2%)	156 (21.0%)	218 (29.%)	131 (17.6%)	68 (9.1%)	2.55
활용 영역 유형	학습 동기 유발						
	0(낮음)	1	2	3	4	5(높음)	평균
사진 · 그림	57 (7.7%)	76 (10.2%)	157 (21.1%)	190 (25.5%)	188 (25.3%)	76 (10.2%)	3.05
표	42 (11.3%)	40 (10.8%)	100 (26.9%)	101 (27.2%)	68 (18.3%)	21 (5.6%)	2.58
차트	80 (10.8%)	89 (12.0%)	168 (22.6%)	218 (29.3%)	129 (17.3%)	60 (8.1%)	2.58

우선 학생들이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흥미나 관심이 생겼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분포¹⁸와 평균¹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사진 · 그림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표와 차트 유형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시각 자료로 인해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학습 동기가 생겼는지 응답한 결과 분포²⁰와 평균²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사진 · 그림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표와 차트 유형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8 $\chi^2=55.581$, $df=10$, $p=.000$

19 $F=24.698$, $p=.000$

20 $\chi^2=30.656$, $df=10$, $p=.001$

21 $F=10.031$, $p=.000$

이 결과를 통하여 사진·그림 유형의 시각 자료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은 학생들이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해당 학습 내용에 대해 기초적 이해를 하는 데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심화된 이해와 추론을 하는 데에

표 13.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른 학생의 활용(인지적 요인)

단위: 명(%)

활용영역 유형	이해						평균
	0 (낮음)	1	2	3	4	5 (높음)	
사진·그림	42 (5.6%)	57 (7.7%)	131 (17.6%)	188 (25.3%)	204 (27.4%)	122 (16.4%)	3.10
표	31 (8.3%)	36 (9.7%)	65 (17.5%)	94 (25.3%)	104 (28.0%)	42 (11.3%)	2.89
차트	47 (6.3%)	60 (8.1%)	117 (15.7%)	194 (26.1%)	198 (26.6%)	128 (17.2%)	3.10
활용영역 유형	심화·추론						평균
	0 (낮음)	1	2	3	4	5 (높음)	
사진·그림	57 (7.7%)	78 (10.5%)	148 (19.9%)	175 (23.5%)	170 (22.8%)	116 (15.6%)	2.90
표	32 (8.6%)	41 (11.0%)	64 (17.2%)	97 (26.1%)	91 (24.5%)	47 (12.6%)	2.85
차트	52 (7.0%)	52 (7.0%)	114 (15.3%)	194 (26.1%)	208 (28.0%)	124 (16.7%)	3.11
활용영역 유형	기억						평균
	0 (낮음)	1	2	3	4	5 (높음)	
사진·그림	48 (6.5%)	80 (10.8%)	132 (17.7%)	189 (25.4%)	173 (23.3%)	122 (16.4%)	2.97
표	32 (8.6%)	30 (8.1%)	67 (18.0%)	95 (25.5%)	101 (27.2%)	47 (12.6%)	2.92
차트	56 (7.5%)	73 (9.8%)	123 (16.5%)	191 (25.7%)	178 (23.9%)	123 (16.5%)	2.98

얼마나 활용했는지, 얼마나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학생들이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해당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세 유형 사이에 분포²²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²³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표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다소 낮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해당 학습 내용을 얼마나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세 유형 사이에 분포²⁴와 평균²⁵에서 세 유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차트 유형이 사진·그림, 표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른 유형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해당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분포와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기초적 이해와 기억에 있어서는 사진·그림, 표, 차트 사이에 그 활용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심화·추론적 이해에는 차트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차트가 도해 조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이러한 차트의 역할을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chi^2=11.185$, $df=10$, $p=.343$

23 $F=3.515$, $p=.030$

24 $\chi^2=19.703$, $df=10$, $p=.032$

25 $F=5.684$, $p=.003$

V. 요약과 결론

이 연구는 중학생들이 실제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다고 인식하는지를 시각 자료의 분류 준거에 따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명칭한 학습 자료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독자이자 학습자로서 시각 자료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에 시각 자료가 필요하며, 현재의 시각 자료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시각 자료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만족도에 비하여 낮았다. 이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만족도와 실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선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참여형 시각 자료를 기초적 이해와 기억에 많이 활용하였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시각 자료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흥미·동기를 갖기 위하여 사진·그림을 활용하는 한편, 심화된 이해와 추론을 위해서는 차트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시각 자료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시각 자료를 제시할 때 학습 목표에 맞게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 목적, 유형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각 자료의 특성과 활용에 대한 실증적인 연

구가 촉구된다.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 목표 달성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습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를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실제 교수·학습에서 학습 목표 달성보다 본문 글 이해가 주된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가 충분히 주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두 가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목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교과서 개발의 측면에서 학습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의 다양성과 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습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시각 자료 중 사진·그림을 찾지 못하여 표, 차트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로, 실제 학생들의 활용과 학생들이 응답한 활용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실제 학생들의 활용을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성별, 성취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추후에는 성별, 국어 성취도, 자료의 특성에 따른 이해도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5. 1. 31. 투고되었으며, 2015. 2.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3.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이철(2009), 『교육방법 및 공학의 이론과 적용』, 학지사.
- 김주환(2011),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pp. 347-378.
- 김지훈 · 이자원(2011),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교과서 시각 자료 분석 연구—중1 사회 지리영역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51,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pp. 65-103.
- 노명완 · 정혜승 · 윤준채(2004),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04-01),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 박정진(2005),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pp. 101-125.
- 박준영(2014), 「검정 국어 교과서 삽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글과의 관계에 다른 삽화의 의무 구성적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pp. 401-430.
- 변영계 · 김영환(199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 성치경(2001),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 준거개발」, 『국어교과교육연구』 1, 국어교과교육학회, pp. 275-306.
- 우문영(2013), 「국어과 평가문항에서의 시각 자료 활용연구」, 『한어문교육』 2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 81-104.
- 정혜승(2003), 「국어 교과서 연구의 현황과 반성」, 『국어교육학연구』 16, 한국어교육학회, pp. 433-469.
- _____(2005), 「미국의 국어 교과서 분석연구—교과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14호, 한국독서학회, pp. 335-371.
- _____(2012), 「국어 교과서의 문제와 개선의 방향—국어 교과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 1-28.
- 주세형(2011), 『국어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dy, P. J. (1982). "Affecting instructional textbooks through pictures," In D. H. Jonassen (Ed.), *The technology of text-principles for structuring, designing, and displaying text* : 301-316. NJ: Englewood Cliffs.
- Hawk, P., McLeod, N. P. & Jonassen, D. H. (1985). "Graphic organizers in texts, courseware, and supplement material," In D. H. Jonassen (Ed.), *The technology of text* vol.2: 158-185.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Slough, S. W., McTigue, E. M., Kim, S., & Jennings, S. K. (2010), "Science textbooks' use of graphical representation: A descriptive analysis of four sixth grade science texts," *Reading Psychology*, 31(3): 301-383.
- Winn, W., Holiday, W. (1982). "Design principle for digrams and charts," In D. H.

Jonassen (Ed.), *The technology of text - principles for structuring, designing, and displaying text*: 2770300. NJ: Englewood Cliffs.

국어 교과서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김해인 · 김경환

이 연구는 186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시각 자료의 제시 형태 · 목적 · 유형에 따라 중학생들이 정서적 · 인지적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 형태에 따라 활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참여형 시각 자료를 이해와 기억에 많이 활용하였다. 둘째, 목적에 따라 활용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각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유형에 따라 활용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흥미 · 동기를 갖기 위하여 사진 · 그림을 활용하는 한편, 심화된 이해와 추론을 위해서는 차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명확하게 ‘학습 자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능동적 독자이자 주체적 학습자로서 시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국어 교과서, 시각 자료, 학습자 인식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Using the Visual Materials of Korean Textbook

Kim Haein · Kim Kyunghwan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perception of second-year students at middle school in relation to how they use visual materials presented in their Korean textbooks.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students use the visual materials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the materials are presented. Second, how the visual materials are used was influenced by purposes. Third, the types of the visual materials had effects on how the students use the materials.

In the light of what have been learned abov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students do regard the visual materials in their textbooks as 'learning materials' and that as an individual reader and an independent learner as well, the students have been using the visual materials in diverse way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such materials.

KEYWORDS Textbook, Visual material, Student's perception